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23호 게재 논문임.

##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박영목\*

<차례>

- I. 서론
- II. 국어 교과에의 특성에 대한 재조명
- III.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 IV. 결론

### I. 서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중시하고,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육성하고, 수준별 능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교육을 표방하였으며, 교육 내용·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 등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정합성을 추구하였다. 학습량의 적정화와 국어교육의 내용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국어교육의 질 관리와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국민공통 교육 기간 동안 기본·심화 과정의 위계와 활동의 연관성을 각 영역 별로 구조화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적인 개정 사항은 국어 교과의 성격 규정의 명료화, 국어 교과 목표 체계의 일원화, 국어과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국어과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 개선,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인제 외, 1997).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금까지 주기적이고도 전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대체로 10년이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6년이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총론으로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내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국가 수준의 사회·정치적 필요를 교육과정으로 수렴하기 용이하며, 교육과정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책과 이들 변인들을 반영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교육과정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학문적 변화에의 적응을 느리게 하고, 일시에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교사

---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들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전문성 신장을 어렵게 하고, 지역적인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에 제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복, 2003).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선정하고 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과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6차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들였던 부분도 바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진은 먼저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를 설정한 다음에,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년별 및 영역별 세부 내용을 선정하였다. 세부 내용의 선정 과정에서는 제3차에서부터 제5차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과, 이들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편찬된 국어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영역별 세부 내용을 선정하는 데 준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교사 학생 국어교육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설문 조사 결과와 면담 조사 결과도 세부 내용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학년별 및 영역별 세부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영역별 세부 내용의 학년 간 위계성, 학년별 세부 내용의 영역 간 균형성, 세부 내용의 진술 방식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에서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바로 국어 교과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고 체계화 하는 일, 지식 생산 능력으로서의 국어 활동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 주기 위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선하는 일, 건전한 인성과 가치관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선하는 일, 제대로 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국어과 영역별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먼저 국어 교과서의 특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와 그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제시해보기로 한다.

## II. 국어 교과서의 특성에 대한 재 조명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학생들의 국어활동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과라는 데서 교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활동 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국어 활동 능력을 갖춘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을 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어 활동 능력의 기준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서로 달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교육에 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통분모를 추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점차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국어 활동 능력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국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어 교과는 교과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과에서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어 활동 능력은 유의미한 활동과 상황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교육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육행정가, 교육정책 수립자 등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시각이다.

언어로서의 국어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게 함과 아울러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용한 도구이다. 국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기본적 매체이고, 우리의 문화를 규정짓는 특성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다. 국어 활동은 상상적 행위로서 우리들 각자의 상상과 경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의 정신 속에 구성해 준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정보의 습득 및 지식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에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 능력으로서의 국어 활동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는 일이다.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21세기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국어 활동 능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등의 전통적인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책,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의 전통적인 매체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하여 재형상화되고 간편하게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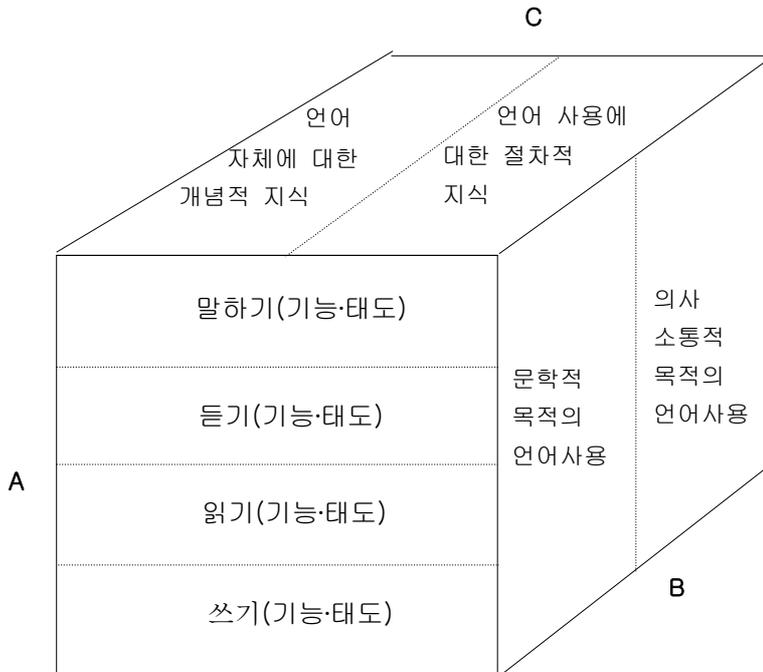
이와 같은 추세와 함께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읽기 활동의 경우에 있어서 문어매체에 대한 읽기 기능이 여전히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21세기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들은 그림이나 동영상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거나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다층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읽기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어 활동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기술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과 학습의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직업과 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어 활동 능력은 기술 문식력, 정보 문식력, 매체 창의성, 사회적 능력과 책임 등의 4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21st Century Literacy Summit, 2002). 기술 문식력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에 접근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정보 문식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타당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맥락에서 활용하고, 수집한 정보의 연관성과 질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매체 내용의 생산과 보급은 거의 무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체 창의성은 학습과 직업생활과 시민생활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써 매체 내용을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능력과 책임은 매체 사용자로서 정보를 선정하고 여과하기 위하여 적절한 도구와 지식의 보유, 그리고 매체 생산과 보급의 사회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 등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21세기의 사회에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의 내용 또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크게 확충되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와 능력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절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필요한 학습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주어진 정보를 조절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경험을 재구조화하고 재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국어 활동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에 모든 사람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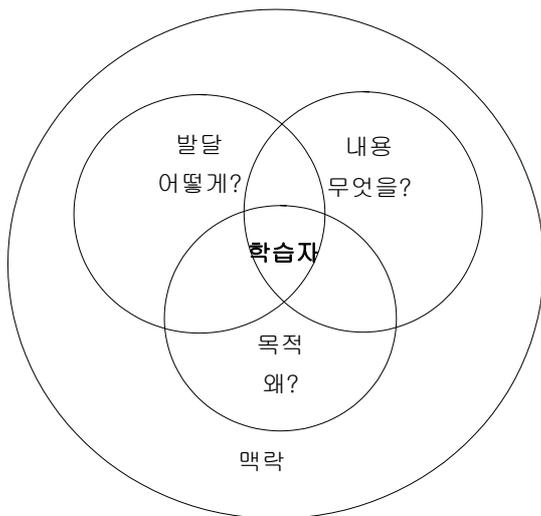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 활동 능력의 학습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평면적인 위상에서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들 사이의 관계를 상하 관계 내지 종속 관계 또는 배타적 관계로 인식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진은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들을 다음<그림1>과 같이 구조화한 바 있다.



<그림 1> 국어과 교육의 주요 측면

<그림 1>은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측면 즉, 국어 활동의 형태(A), 국어 활동의 목적(B), 국어 활동의 기저 지식(C)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제시된 세 가지 주요 측면은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시각과 직결된다.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시하는 시각은 측면 A와 직결되고, 배경 학문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시하는 시각은 측면 C와 직결되며,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중시하는 시각은 측면 B와 직결된다. <그림 1>에 제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국어과 교육의 특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활동 능력의 학습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인은 내용, 목적, 발달, 상황의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인은 국어 활동 능력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의 결정은 국어 활동 능력 학습의 네 가지 요인, 즉 내용 요인, 목표 요인, 발달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2>는 국어 활동 능력 학습의 구성 요인을 IRA와 NCTE(1996)의 ‘영어학습 성취 수준 모형’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 국어 활동 능력 학습의 구성 요인

국어 활동 능력 학습의 구성 요인 중에서 내용 요인은 학생들이 국어교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와 연관되는 요인이다. 국어교육의 내용은 문어와 구어와 시각 텍스트에 관한 지식은 물론 그러한 텍스트를 창안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어 활동의 과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국어교육의 내용은 개인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식과 연관될 수 있다. 주어진 언어사용 활동 상황에 따라 개인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이 결합될 수도 있다.

목표 요인은 학생들이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들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언어 사용 활동의 바람직한 결과, 동기, 이유, 목적 등과 연관되는 요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표출하기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관찰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미적 경험을 향유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적 활동

에 참여하기 위하여 언어사용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은 인간의 언어사용활동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발달 요인은 학생들이 사려 깊은 언어사용자로서 어떻게 성장·발달해 가야 하는지와 연관되는 요인이다. 사려 깊은 언어사용자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학생들은 내용적 지식과 일련의 전략을 축적해 나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어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들 지식과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 국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언어를 명료하게, 전략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해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국어활동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언어의 관습에 관한 지식과 이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신장해 나가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국어 활동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국어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은 언어의 구조와 의미와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어 활동은 특정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은 국어 활동 능력의 학습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들에 대한 높은 교육적 기대를 촉진하고 교육기회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도달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모든 학생들이 장차 유능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을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을 충실히 갖춘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에 모든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부모, 정책 수립자,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만으로 사회·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교에도 최적의 학습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기준 혹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미국의 IRA와 NCTE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영어교육 성취 기준(IRA & NCTE, 1996)을 참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들은 텍스트와 학생들 자신과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학생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는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사회와 직업세계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개인적 필요 충족하기와 향유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 즉 철학적 윤리적 심미적 측면 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시기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작품의 유형과 양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감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전략은 학생들 자신의 경험, 다른 독자 및 필자와의 상호작용, 단어의 의미 및 다른 텍스트에 대한 지식,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도출

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다양한 대상과 상이한 목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음성 언어와 문자언어와 시각언어의 사용 방식을 언어 관습, 사용 어휘, 표현 양식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은 작문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작문 전략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목적과 서로 다른 독자에 따라 적절한 작문의 과정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문어 텍스트와 비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언어의 구조, 언어 관습, 매체 이용 기법, 비유적 언어, 장르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들 지식을 국어 활동의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 자원 및 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은 아이디어 생성과 질문을 통하여 주요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발견해 낸 사항을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천(인쇄자료, 영상자료, 작품, 사람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함과 아울러 지식을 창안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네트워크, 비디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적 자료와 정보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학생들은 문화, 지역,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어 사용의 방식이나 유형 혹은 방언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열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범교과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영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열한째,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유식하고 사려 깊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열두째, 학생들은 학습, 향유, 설득, 정보 교환 등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어와 문어와 시각언어를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은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술되고 있는 국어 교과목의 목표의 정교화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어에 관하여 학습함과 아울러 텍스트에 대하여 학습하고 텍스트와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국어 교과에서 학생들이 국어에 관하여 학습하게 되는 텍스트는 간단한 담화에서부터 복잡한 형식의 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어떤 특정 텍스트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국어 교과를 통한 바람직한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어교과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어능력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장하고 확장해 나가게 된다. 국어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능적 문식력과 비판적 문식력을 계발해 나간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문화 공동체가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국어 활동의 기본적인 관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학습함과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언어 사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추하는 법을 학습한다.

국어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사고의 도구이고, 창조의 수단이며, 즐거움의 원천을 제공한다. 국어를 이해하고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공동체 내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국어사용능력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일과 사회생활의 특성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고 상이한 의사소통 형식이 대단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문식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어는 모든 시간과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이며 변화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일련의 규칙이나 활동이 아니다. 20세기 초의 한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했던 국어사용능력들만으로는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는 문식적인 사람도 다른 상황에서 요구되는 문식적 기능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문식적이게끔 하는 기능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식적 상황과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이고도 특수한 문식력은 사실 다른 여러 교과와 학습 영역에 속하지만 국어 교과는 국어와 국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식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능적 문식력은 언어 공동체에 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채택되고 있는 언어 관습을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언어 관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언어 관습에는 글씨쓰기, 맞춤법, 문법에서부터 언어 사용의 목적 및 대상과 맥락과 연관되는 언어 사용 형식과 장르와 양식 등과 연관되는 관습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향유와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시 방식과 연관되는 관습, 여러 유형의 문학 텍스트와 연관되는 관습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과 태도를 소통하기 위하여, 점점 복잡해져 가는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급속하게 증대되는 새로운 지식과 사고 양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언어 관습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기능적 문식력과 함께 비판적 문식력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비판적 문식력의 습득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국어가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 조건에 반응하는 역동적 사회화 과정임을 이해함과 아울러 국어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가치, 신념, 사고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판적 문식력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물론 의사소통 의미의 맥락, 목적, 대상에의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

비판적 문식력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와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발달된 언어 사용 기능은 지식을 통하여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조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힘을 제공하고, 언어는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언어와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은 밀접

하게 상호 연관된다. 국어 교과를 통한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의 개발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사려 깊고 적절하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줌과 아울러 지식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국어과 교육은 언어 자료, 즉 텍스트를 중핵으로 하는 국어 활동 능력의 신장이라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3>은 국어 교과의 특성을 호주의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 학습의 기본 골격(Curriculum Council of Western Australia, 1998)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3> 국어 교과 학습의 구성 요인

### Ⅲ.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편제,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절성,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성,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 구분의 정합성, 국어과 교육 목표의 타당성과 적절성,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방법 항목과 평가 항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다음에서는 이들 쟁점들 중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는 ‘성격’, ‘목표’, ‘내용(내용 체계+학년별 내용)’, ‘방법’, ‘평가’ 등으로 되어 있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성취 기준 형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어과 교육

의 내용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의 하위 영역별로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준거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보충 학습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에 ‘기본’과 ‘심화’만 제시되어 있다. 수준별 학습의 의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의 통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타당한 준거와 실제적인 활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와 과목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어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및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는 ‘국어 생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새로운 국어과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의 국어생활 과목의 필요성과 정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의 개설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문식력을 기준으로 심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현행 심화 선택 과목과는 달리 국어문화, 영상언어, 전자언어, 언어표현, 언어이해, 한국문학, 세계문학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와 내용 체계와 내용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그 연계성과 위계성이 미흡하여 내용이 학년 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준별 학습 활동에 제시된 내용의 변별성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국어활동능력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타당하고도 명료한 근거도 없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위계화 하게 되면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과 체계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위계화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기준은 국어활동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유형과 장르와 복잡성과 텍스트와 연관되는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준은 국어활동의 명료성, 전략성, 비판성, 창의성 정도 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와 내용 영역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영역 간에는 횡적 연계성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국어 활동 영역과 국어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을 대등한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국어 활동의 양식을 기준으로 내용 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어 교과와 내용 영역은 구어 매체로서의 말하기와 듣기, 문어 매체로서의 읽기와 쓰기, 영상 매체로서의 보기와 나타내기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각 영역별 교육과정 내용은 국어활동의 목적, 국어활동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 국어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어 지식과 국어 관습과 국어활동 과정과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는 독자적인 내용 영역을 지닌 교과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나타내기 등의 국어활동 영역과 국어 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의 복합적인 통합으로 구성된 교과이다. 국어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나타내기 등의 하위 활동 영역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활동과 학습 활동을 촉진한다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을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언적 지식 중심의 내용 선정에서 벗어나 절차적 지식과 인지 전략을 중시하는 내용 선정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태도와 정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식에 대한 언어적 표상 활동과 비언어적 표상 활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결국 사려 깊고 격조 높은 국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의 방식으로 길러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영역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어 활동의 양식을 기준으로 내용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문식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읽기 영역에는 보기 관련 활동을, 쓰기 영역에는 나타내기 관련 활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 활동은 지식과 전략과 태도·가치·신념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 사용 활동의 네 영역 모두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은 언어 사용 활동의 네 영역 모두에 걸쳐 실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은 국어 활동 능력의 신장에 필요한 개념적 지식, 국어 활동 능력의 신장에 필요한 인지 전략, 바람직한 국어 활동 능력을 위한 태도·가치관·신념, 국어 활동 능력의 신장을 위한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내용의 균형성 및 연관성 요인과 함께 계열성 요인을 중시해 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국어 교과에 대한 재조명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을 구조화 하는 일과 학년별 및 영역별 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일과 성취 기준에 따라 기본 과정 심화과정 보충과정 등의 각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활동 및 내용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진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을 근간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급격한 내용상의 변화는 국어과 교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

정 과정에서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선진 외국의 자국어 교육 개혁을 위한 연구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국어 교육의 개혁은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지니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인지주의 혁명은 국어 활동 능력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하였다. 지식의 습득에 대한 과거의 기계적 이론과는 달리 학습은 정신의 구성과 의미 형성의 능동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지주의 이론에 의하면 기존의 지식구조와 신념이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함과 촉발한다. 학습 과정에서의 지성적 사고에는 자기조절과 언제 어떻게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단순히 정보의 축적으로써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입각한 일관된 사고방식과 문제 표상에 의하여 개발된다(Shepard, 2000).

또한 Vygotsky와 다른 소비에트 심리학자들의 업적에 힘입어 마음은 사회적이고도 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자각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지능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인지적 능력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발된다'는 새로운 이론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비록 Vygotsky가 아동들이 어떻게 사고 학습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지녔지만 그의 사회적 중재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 발달, 학문분야에서의 전문성, 상위 인지적 기능, 정체성 형성 등에 적용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발달과 학습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학습이론으로부터의 이러한 통찰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원리를 마련해 주었다. '모든 학생들은 학습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은 단지 소수의 우수학생 집단만 도전적인 교과 내용을 통달할 수 있다는 과거의 신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학습자를 위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유형 및 언어와 일관성을 지니는 교육과정과 양질의 교수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과 교실에서의 일상적 교수학습 절차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사고 양식 및 표현 양식의 측면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의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 맥락에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 바깥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인지능력의 개발과 함께 교실에서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은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풀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중요한 성향의 개발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국어활동은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를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 행위이다. 국어 교과는 이러한 국어활동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과라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언어 사용의 방식과 연관되는 과정 요인과 함께 언어 사용의 대상과 연관되는 내용 요인도 함께 다룬다. 과정 요인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나타내기 등의 언어 사용 활동에 이용되는 기능, 전략 등과 연관되는 요인이다. 내용 요인은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생각, 중요한 갈등 등과 연관되는 요인이다. 언어 사용 활동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경험, 문화적 관점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형성케 해 줌과 아울러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전통과 유산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시민적

문식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과 학교와 사회 공동체와 직장에서 인쇄매체, 시각매체, 청각매체, 기술매체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도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개념과 생각과 주제에 관하여 분석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국어활동, 즉 국어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국어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공동체 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구어텍스트와 시각텍스트와 문어텍스트의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국어활동을 통하여 인간 경험에 관한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국어활동을 통하여 호기심, 인내심, 지적 유연성, 반추적 사고 등과 같은 평생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국어활동을 통하여 모든 교과 영역의 지식을 연결 지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효과적으로 신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는 독자적인 내용 영역을 지닌 교과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나타내기 등의 국어활동 영역과 국어 지식 영역과 문학 영역의 복합적인 통합으로 구성된 교과이다. 국어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나타내기 등의 하위 활동 영역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활동과 학습 활동을 촉진한다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활동의 과정에 대한 학습과 내용에 대한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어텍스트와 문어텍스트와 시각텍스트 속에 내포된 보편적인 인간 경험, 주요 문제, 아이디어, 갈등 등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활동에 필요한 과정과 기능과 전략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 국어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전략은 모든 교과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

국어과 교육의 중핵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어활동 능력의 신장은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언어로서의 국어와 사고는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서 사고를 표상하는 형식이며, 사고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의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국어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언적 지식 중심의 내용 선정에서 벗어나 절차적 지식과 인지 전략을 중시하는 내용 선정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태도와 정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식에 대한 언어적 표상 활동과 비언어적 표상 활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결국 사려 깊고 격조 높은 국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의 방식으로 길러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재복 (2003)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 내실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립 5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목 (1997)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구조화와 수준 결정의 준거, 한국교육개발원 학술

세미나 논문집.

박영목 (2003) '21세기의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호, 한국어교육학회.

이인제 외 7인 (1997) 제7차 국어과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7-23.

21st Century Literacy Summit. (2002). White paper: 21st century literacy in a convergent media world. Bertelsmann Foundation & AOL Time Warner Foundation

Applebee, A.N. (2000). Alternative models of writing development. In R. Indrisano & J.R. Squire (Eds.) *Perspectives on writing*. Delaware: IRA.

Bereiter, C., & Scardamalia, M. (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NJ: Erlbaum.

Berlin, J. (1987). *Rhetoric and realit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Bizzell, P. (1982). Cognition, context, and certainty. *PRE/TEXT*. 3. 213-224.

Boden, M.A. (1988). Computer model of mind. NY: Cambridge U. Press.

Britton, J.N., Burges, T., Martin, N., McLeod, A., & Rosen, H. (1975). *The development of writing abilities (11-18)*. London: Macmillan.

Brown, A.L., & Campione, J.C. (1994). Guided discovery in a community of learners. In K. McGilly (ed.), *Classroom lessons: Integrating cognitiv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MA: MIT Press.

Bruce, B.C. (Ed.). (2003).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DE: IR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988). English Language Arts Cont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C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ouncil of Western Australia (1998) Curriculum framework learning statement for English.

Curriculum Council. (2005). Curriculum Framework Progress Maps-English. Western Australia.

de Beaugrande R. (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NJ: Ablex.

Durant C., & Green, B. (2001). Literacy and the new technologies in school education. In H. Fehring & P. Green (Eds.), *Critical literacy*. DE: IRA.

Flower, L. (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Flower, L., Wallace, D. L., Norris, L., & Burnett, R. E. (Eds.). (1994). *Making thinking visible*. NCTE.

Flower, L.S., & Hayes, J.R. (1980). The dynamics of composing. In L.W. Gregg & E.R. Steinberg (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NJ: Erlbaum.

Gaffney J.S., & Anderson, R.C. (2000). Trends in reading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In M.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NJ: LEA.

Gambrell, L. Morrow, L., Neuman, S., & Pressley M. (Eds.), (1999). Best practices in literacy instruction. NY: Guilford.

- Gee, J.P. (2000). Discourse and sociocultural studies in reading. In M.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NJ: LEA.
- Hayes, J.R. (1996).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gnition and affect in writing. In C.M. Levy & S.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NJ: LEA.
- Heather, F., & Green, P. (Eds.) (2001). *Critical literacy*. DE: IRA.
- International ICT Literacy Panel. (2004). *Digital Transformation: A Framework for ICT Literacy*. ETS.
- IRA & NCTE. (1996). *Standards for the English language arts*. IRA & NCTE.
- Kaufert, D. S., & Butler, B. S. (2000). *Designing interactive worlds with words*. NJ: LEA.
- Levy, C. M., & Ransdell, S. (Eds.). (1996). *The science of writing*. NJ: LEA.
- Marzano, R. (2003). language, the language arts, and thinking. In J. Flood et al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NJ: LEA.
- Myers, J., & Beach, R. (2003). Hypermedia authoring as critical literacy. In Bruce, B.C. (Ed.).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DE: IRA.
-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Skills. (2005). *Learning for 21st century*. [www.21stcenturyskills.org](http://www.21stcenturyskills.org)
- Pugh, S. L., Hicks, J. W., & Davis, M. (1997). *Metaphorical way of knowing*. NCTE.
- Raphael, T.E. (2000). Balancing literature and instruction. In B.M. Taylor, M.F. Graves, & P. van den Broek (eds.), *Reading for meaning*. IRA
- Sullivan, J.E., & Sharp, J. (2000). Using technology for writing development. In S.B. Wepner, W.J Valmont, & R. Thurlow (Eds.), *Lingking literacy and technology*. DE: IRA.
- Vygotsky L.S. (1986). *Thought and language* (A. Kozulin, Trans.). Cambridge, MA: MIT Press.

<초록>

##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박영목 (홍익대 교수)

앞으로의 새로운 국어과교육과정은 국어과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태도와 정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식에 대한 언어적 표상 활동과 비언어적 표상 활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결국 사려 깊고 격조 높은 국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의 방식으로 길러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영역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어 활동의 양식을 기준으로 내용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문식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읽기 영역에는 보기 관련 활동을, 쓰기 영역에는 나타내기 관련 활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 활동은 지식과 전략과 태도·가치·신념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 사용 활동의 네 영역 모두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은 언어 사용 활동의 네 영역 모두에 걸쳐 실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과 체계, 국어활동을 위한 지식과 전략과 태도·가치·신념

<Abstract>

## The New Directions of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Park, Young-Mok

Current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include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the study of literature. The new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should be focused on the learning outcomes of Korean language arts. The outcomes must represent a strong consensus on the knowledge, strategies, and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that all students should be able to master in the Korean language arts. Through the learning of the Korean language arts,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ad and write a broad range of written texts and multimedia texts, and they should be able to speak well and listen carefully and effectively. Through the structured study of literature they should be able to recognize universal themes and to compare styles and ideas across authors and eras.

The new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should be focused on the modern literacy requirements and future literacy requirements. and also should emphasize the applications of Korean language arts learning, The applied learning skills such as solving problem, communicating, using ICT, working together greatly influence students' success in school and in the society.

**【Key words】** the learning outcomes of Korean language arts, the knowledge, strategies, and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of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